

칼빈, 산업시대의 예언자?

김형민(한남대)

순종의 윤리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함께 사는 기독교인의 도덕적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은밀히 은폐되어 있는 경제사범과 부패 등에 연루되어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유감스럽게도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교회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마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정적 의미의 이중도덕에 따라 살아가는 듯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교수의 사회윤리적 칼빈 연구는 독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앙인들에게도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의 길”을 요청하고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칼빈이 진정 얼마나 동시대의 교회에게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순종의 길 곧, 사고와 행위의 순종, 사회적 정치적 순종을 가르쳤는지, 우리는 그에게서 한 예를 깨닫는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과 실천의 괴리로 인해 고통스러워했던 경험을 가진 우리들에게 칼빈의 사회윤리적 동기들은 많은 시사적(aktuell) 의미를 던져준다.

교회의 윤리

현대의 개신교 사회윤리에는 다양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서로 대립된 주장들이 존속하고 있다. 필자는 칼빈의 신학적 전체에 연원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교회윤리(敎會倫理)를 전개한다. 그는 이에 근거해 현대 산업사회에 응용될 수 있는 사회윤리적 개념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이 개념들을 비유적 사고와 연관시키고 결국은 노동, 결혼과 가정, 정치, 교육, 법과 경제와 같은 제도와 기독교회 사이의 상관적 관계를 요청한다. 교회윤리가 사회적 프로그램과 혼동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이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의 봉사를 통해 훈련되어야 할 사회적 에토스이다. 이 사회론은 사실상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를 구체적 실천에 옮기도록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 예가 1934년 바르멘 신학선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체하에서 윤리는 항상 “선포의 행위, 말하자면 기독교의 교의학적 진리의 확장의 행위”(T. 렌트르프)로 이해될 뿐이다. 고백윤리(告白倫理)는 기독교회의 사회적 환경의 세속적 기본 질서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보편적 윤리

필자에 의하면 칼빈의 사회윤리는 국가윤리의 실증적 가치의 내적 척도로서의 “보편적 공익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보편적 공익을 논증함에 있어 규범의 기원과 그 유효성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칼빈적 종교개혁은 현대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생성하는 역사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신적 의지에 의해 규정된 법질서”를 따라 논증되고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철학자 브리스코론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다. “규범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인의 사회적 지

위 또는 국회의원의 사회적, 정당정치적 기원 혹은 정치적 혹은 세계관적 관점이 아니라 그 내용이다.” 윤리적 규범의 유효성은 그 역사적 기원과 무관하게 오직 그 내용에 의해 규정된다.

중재가능한 윤리

기독교 사회윤리는 윤리적 규범들이 각 사회제도와와의 연관을 통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검토한다. 이와 같은 윤리적 기본 질문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독교인의 개인적 행위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들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에서 교수는 교회와 세계, 교회와 정치 사이의 경계가 소실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지만 윤리적 행위의 제도적 제(諸) 전제와 중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요구윤리

글 전체에서 칼빈윤리의 기본적 동기들이 현재적(aktuell), 말하자면 예언자적 설교조(說敎調)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은 사회윤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학적 기본 질문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종교적이며 세계관적으로 볼 때 다원적 현대 사회 속에서 예언자적 투의 절대성에 대한 요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 여기서 “시대에 맞게(aktuell) 설교함”은 단순히 요구신학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고상한 요구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될 때 자신의 설득력을 상실하고 만다.